

# “교지 만드는 게 최고의 글쓰기 교육”

〈校誌〉

## ■8개 학교서 교지 발간한 무안고 김문주 교사



아이들 표현 공간 부족 느껴  
글모음집 모은게 발간 동기  
학생·학부모·교사 등 참여  
학교 전체 하나된 '나눔의 장'

부임하는 학교마다 교지를 제작해 교지 경력 17년동안 13호를 발간한 교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김문주(43) 무안고등학교 교사. 김교사는 지난 1989년 전남대 사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순천 외서중학교에서 사도의 길에 들어섰다. 이때부터 김교사의 교지제작이 시작됐다. 교단에 처음 서게 된 김교사는 아이들이 표현하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껴 처음 글 모음집을 만들었고, 글모음집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시작해 교지를 제작하게 됐다. 이미 창간호가 나와 있어 2호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았다. 이후 부임지를 옮길 때마다 김교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능동적인 독서교육' 계획을 수립해 독서교육을 하는 한편 교지를 제작, 학생, 학교, 교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장'을 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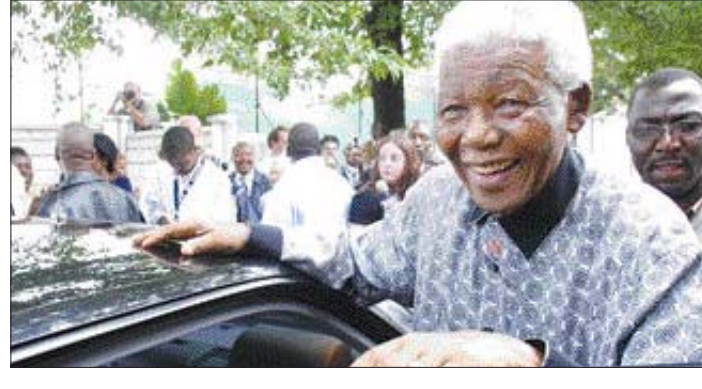
어갔다. 신안 흑산중학교 등 섬마을 교사로 근무할 때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교내외 학생 문예활동이나 독서지도에 관심을 기울여 학생들의 글쓰기 실력 향상과 독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도 하면서 교지제작을 거르지 않았다. 때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재를 털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교지가 제작될 때마다 아이들의 발전과 성장이 느껴지는 것을 보고 교지제작은 교단에 서는 동안 '숙명적으로 해야 할 작업이다'는 결심을 굳혔다. 전임지인 화순 동복중학교에서는 창간호부터 제24호까지 매년 교지를 발간했다. 특히 처음 발간한 창간호가 학교 동문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선배들의 글이 교지에 실리게 되고,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 전체가 하나된 '나눔의 장'이 됐다. 더불어 동문들이 재

학생들을 위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는 등 잊어버렸던 모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교지로 인해 하나된 동문들은 지난해 동문회를 만들었으며 서울지역 동문들은 재학생들을 초청, 서울 체험학습을 돕는 등 재학생들을 위해 물심양면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이처럼 글쓰기 교육과 교지제작을 통해 동문, 학부모, 학생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 역할을 해낸 김교사는 지난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장 관으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교사는 이러한 포상보다 화순동복중학교를 떠나면서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동문들이 구구절절이 아쉬움을 표현한 글들이 그렇게 고마울수가 없다. 김교사는 “작은 실천이 학부모, 학교, 동문, 학생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며 “교단에 서는 한 함께하는 학교교육을 이끌어 내는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박지성 출현에 명동 들쭉들쭉 팬들과 토크쇼...티켓·사인볼 증정도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명동 한복판에 뒀다. 17일 서울시 중구 명동 밀리올레 인근 나이키 맨유 스토어에 박지성이 얼굴을 드러내자 1천여명의 팬들이 좁은 명동 길에 한꺼번에 몰려 저마다 손에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 캠코더를 들고 '잉글랜드에서 날아온 파워 엔진'의 모습을 담느라 30분 넘게 인도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박지성은 간단한 기자회견과 포토틀링 행사, 맨유-FC서울전 티켓과 사인볼 증정 행사를 했다. 팬들과 토크쇼 형식으로 과묵한 말문도 열었다. 박지성은 “그라운드에서 나서는 못하는데 이렇게 팬들을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고 했다. 그는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월쯤엔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 특별한 휴가 계획은 없고 집에 있는 게 가장 편하다”고 말했다. 명동 나들이는 2002년 한일월드컵 즈음 행사 때 잠시 나왔던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한다. 박지성은 20일 상암장에서 열리는 맨유-서울전에 뛰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전망을 했다. “프리미어리그는 유럽 최강이고 우리 팀은 리그 우승팀이다. 개인적으로 맨유가 이길 것 같다. 하지만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라 쉽진 않을 것 같다. 아무튼 흥미로운 한 판”이라고 했다.



## 만델라 생일 기념 세계 울스타 축구 김주성 등 월드컵스타 11명 참여

넬슨 만델라 전(前)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18일로 89회 생일을 맞는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만델라의 생일을 맞아 열리는 올해 기념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날 케이프타운에서 열리는 '만델라를 위한 90분'이라고 명명된 울스타 축구경기. 우리나라의 김주성 대한축구협회 국제부장도 참여하는 이번 경기에서는 '축구황제' 펠레 등 '월드스타 11명'과 카메룬 출신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격수인 사뮈엘 에토오 등 '아프리카 베스트 11'이 자웅을 겨룬다. 이번 경기를 통한 수익은 전액 만델라재단의 에이즈바이러스(HIV)에이즈 퇴치기금으로 기증될 예정이다.

## “고국 더 많이 알아 또다른 역사 왜곡 막아야죠”

### 등교 거부로 '요코 이야기' 교재 중단 이끌어낸 허보은 양

왜곡된 역사소설 '요코이야기'를 배울 수 없다며 1주일간 등교를 거부한 끝에 학교 측의 교재사용 중단을 이끌어낸 뉴욕 R중학교의 허보은(11·미국명 알렉스 허)양이 고국을 찾았다. 재외동포재단과 YMCA전국연맹이 개최하는 '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에 참가한 허양은 17일 “어머니를 따라 한국을 방문해 일본인들이 식민지 통치시절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허양은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왜곡 사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연수 기간에 고국을 더 많이 알고 체험하고 싶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번 방한 기간에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허양을 대신해 어머니 박영순씨는 “팔은 말 수가 적고 나서길 싫어하는 성격”이라며 “평소 책 읽고 글쓰기를 좋아했기에



소신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동포 2세인 허양은 지난 9월 영어시간에 '요코이야기'가 교재로 배포되자 미리 읽어보고 이를 배울 수 없다며 등교를 거부했고, 학교 측은 허양의 뜻을 받아들여 교재 채택을 중단했다. 소설가나 수필가가 되고 싶다는 허양은 “연수 일정을 다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친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언론이 더 이상 재예기를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 상황에서는 한국인인 누구든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농협광주본부, 고객 만족도 향상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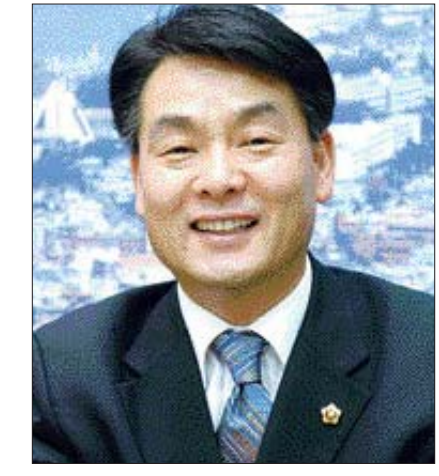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12~16일 관내 전 농협 130개 사무소에서 고객만족도(CSI) 향상을 위한 맨시창구 개점식을 갖고 16일 서창농협 앞에서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 “청소년들에 미항 여수·박람회 유치 홍보”

### 서일용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집행위원장

“BIE(국제박람회기구)회원국 청소년들을 대거 초청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열기를 확산시키고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 8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일용 전남도 의원은 “올해 축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연계해 BIE회원국 35개 나라 105명이 여수로 온다”면서 “이들에게 여수의 아름다움과 박람회 유치 당위성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특히 “청소년들을 관객이 아닌 참여주체로 전환하고 행사장소를

한 곳에 집중하는 등 행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BIE회원국 청소년들의 초청비용이 많이 소요돼 축제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지난 4월 BIE실사단 맞이패처럼 여수시민들의 열정과 세계박람회 유치의지를 한데 모아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전하고 최선의 준비로 완벽한 축제를 만들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는 8월9일부터 2박3일간 여수 종화동 해양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함께 가져~ 우리의 꿈을 찾아’를 주제로 국외 248명, 경연참



가자 800명, 국내 5만8천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할 예정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워드 “펀드 형태 자선재단 설립”

### 국내내 설립 예정 자선재단과는 별도

미국 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하인스 워드(31)가 미국내에 독자적인 자선재단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재단에 가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와이드 리치 버인 워드는 “새로운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피츠버그 지역 최대의 복지 기관인 ‘피츠버그 재단’ 안에 자선펀드를 설립하는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워드는 이날 팀 동료인 맥스 스타스가 맨 처음 가입한 ‘피츠버그 재단’내 ‘스포츠 복지 자문 위원회(위원장 짐 로디)’에 역시 동료인 트로이 플라말루와 함께 가입했다. ‘피츠버그 재단’은 이들 스포츠 스타 3명 이외에 1천100명의 기부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자문위원회는 펀드 설립자가 원하는 분야에 기금이 쓰이도록 관리해준다. 워드측 앤드루 리 변호사는 리 변호사는 “워드가 한국에 설립하기로 한 자선 재단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 이지섭 광주제일로타리클럽 회장 취임

이지섭 이지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최근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제일로타리클럽 1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지섭=김기환기자 kgh@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김장수씨 장남 성호군 조성훈(전 일동학원 원장)씨 차녀 한나양(21일(토) 오후 1시 연세대 동문회관).
- ▲황재용씨 장남 영진군 장기원(충장서립 대표)씨 장녀 정운양(21일(토) 오후 1시30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예식부).

**알림**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1095

-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사설 입소 안내. 227-8877
-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 ▲(사)국제제철협회 광주서부지

부 외국인 여성 위한 한글학교 운영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점심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동창·동문회**

- ▲광주 18회 동창회(회장 오경교) 모임=18일(수) 오후 7시 삼희불나 상무점. 376-3233
- ▲대성초교 제19회 동창회(회장 하호기) 월례회=19일(목) 오후 7시 미연복집. 016-651-9772

**모집**

- ▲조선대 평생교육원 시낭송 교육지도사 과정 수강생 모집=시낭송 지도사 되고 싶은 성인 남녀 및 학생. 문의 016-629-3932
- ▲광주전남건설기능학교 수강생

- 모집=형틀목공, 철근공, 초보자 가능. 문의 524-8883
- ▲호남학원구원 설립추진위원회(가칭) 직원 모집=문화 소양과 사무 능력 갖춘 자. 사무국장은 45세 이하, 사무원 30세 이하. 18일까지 접수. 국장 월 150만원, 사무원 월 100만원. 4대보험·주 5일근무·퇴직금. 문의 234-2727. www.r-culture.co.kr
- ▲광주향교 하계 한문·예절 교육 수강생 모집=7월23일~8월25일까지 1개월간. 사자소학·대학·논어·맹자 및 서예·예절교육·화어집 등.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문의 672-7008
- ▲아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모집=고졸 이상 학생지도 가능자. 문의 262-2780, 3
-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가사 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희망하는 주부 및 고령자. 문의 511-0011~3
- ▲한국아사회 광주지점 무료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계림동 마사회 광주지점 2층. 문의 410-5000
- ▲광주인연맺기학교 차량자원활동가 모집=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차량 자원활동가 모집. 문의 010-2323-2688
- ▲제3의학연구소 무료 강좌=심신 건강·습관 교정·활기찬 삶을 원하는 사람. 문의 227-0464
- ▲민요와 장구 사랑 회원 모집=남도 서도 경기민요를 배울 사람 모집. 사회 봉사 활동에 뜻있는 희망자 환영. 019-601-6989
- ▲적십자사 수지침 봉사회 회원 모집=수지침 요법을 배워 사회 봉사에 참여할 분. 무료. 018-610-3360
- ▲사진회원 모집=사진 촬영에 관심이 있는 자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정기 현장 촬영. 010-3638-0289
- ▲한마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 보조인 모집=북구 운남동 체험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2명을 위한 활동보조인 모집. 오전 7시~9시(시간 조정 가능). 문의 431-8025, 010-9881-1276
- ▲여성생활체육 자전거 강좌 수강생 모집=여성이면 누구나 가능. 매주 월·화·금 오전 9시부터 사무

민공원 테니스장. 016-9877-0360

-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 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부음**

- ▲김복희씨 별세 허용현·육현(광주지방경찰청장)·유영희 모친상=발인 18일(수)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02-590-2135
- ▲박옥엽씨 별세 김용규씨 모친상 김승호(부산경남본부세관 운영과장)씨 빙모상=발인 18일(수) 순천시 성가톨릭병원 장례식장 특실. 061-722-4444, 051-460-6030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기적같은 특별한 양**

☎ (062) 521-1100